

# 짚풀공예 '조상의 지혜'를 만나다

### 비움박물관, 내년 2월 11일까지 '겨울을 담다' 특별전시회

짚풀은 모든 알곡의 이삭을 떨어낸 줄기가 있는 풀로 벼, 갈대, 밀, 산죽, 칩, 싸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짚풀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비움박물관(광주시 동구 중영로 143-1)에서 열리고 있는 짚풀공예전시회에서 만나는 민속품들은 새삼스레 조상들의 지혜와 겸손함을 생각하게 된다. 전시작들은 일상의 생활용품이자,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전하는 소박한 예술품이기도 하다.

상설전과 함께 계절에 맞는 기획전을 열고 있는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이 겨울 전시를 준비했다. 내년 2월 11일까지 '겨울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짚풀을 이용해 엮은 다양한 짚풀공예품이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짚과 왕골 속을 섞어 만든 바구니,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어 물건을 보관하던 버들고리, 땀방울이 맺힌 대형 바구니 맷뚜리, 소쿠리, 방석, 밀짚모자, 망태, 씨앗통, 삼마니 가방 등 친숙한 민예품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짚풀 공예품도 있다. 새로 난 풀이나 작물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소입매개, 제사 때 목기 대신 사용했던

짚풀 제기, 쇠다리미를 놓아두는 다리미 받침대, 병아리 부하장 등이다.

초가지붕 아래 달았던 짚물고기도 인상적이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았기 때문에 짚으로 만든 물고기를 초가지붕 아래 매달아 집을 지키게 했다.

일·월요일 휴관.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근대 음악극 '청춘연가' 극 배경 목포서 송년 무대

### 근대 가요+현대 음악 뮤지컬화 극단 갯돌 23일~29일 목포문화예회관·미식문화갤러리



근대 음악극 '청춘연가 2022<사진> 연말 송년 앙코르 공연'이 목포문화예회관과 목포미식문화갤러리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진다.

극단 갯돌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930년대 목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근대 가요의 현대적 음악과 접목시켜 뮤지컬화했으며 18개월의 제작 과정을 거쳤다. 공연은 지난 9월과 10월 10회에 걸쳐 선보였고 공간의 한계로 더 많은 관객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앙코르 공연으로 다시 시민들을 찾는다.

먼저 23일과 24일에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간 1897에서 진행되며 27일부터 29일까지는 목포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공연의 배경은 1930년대 목포의 카페로 이곳에

서 일하는 주인공이 가수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의 청춘이야기로 펼쳐지며 당시의 근대가요를 즉석에서 선보여 볼거리를 더한다.

앙코르 공연에서는 목포문화예회관 영상과 무대미술등을 통해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청춘연가 야외버전을 업그레이드했으며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간 1897 실내공연은 입접해 있는 요

식업 업체와 협력을 통해 1930년대 로망스 카페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간1897 공연은 유료 입장(5000원)으로 진행되며 목포문화예회관(갯바위)에서는 전좌석 무료(초대)로 마련했다. 공연은 전좌석 예약제로 운영되며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10-8503-9213.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명사 25인이 기억하는 '김지하'

### 추모문집 25일 발간

지난 5월 별세한 김지하 시인을 기리는 추모 문집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을 열다'가 오는 25일 출간된다.

김지하시인추모문화재단추진위원회는 20일 출판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이 펴낸 이 책은 지난 6월 고인의 49재를 맞아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발표

된 글을 비롯해 신문, 온라인 등에 게재된 추모사가 수록됐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소설가 황석영, 철학자 도은 김용옥, 염무웅 문화평론가, 판소리 명창 임진택 연극 연출가 등 25명이 기억하는 김지하의 모습이 담겼다.

추모문화재단추진위원회는 내년 5월 1주기를 앞두고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5월 6-7일 이틀간 추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같은 달 4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꽃과



달마, 그리고 흰 그늘의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추모 서화전이 열린다.

위원회는 김지하 시인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할 예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다큐멘터리 '송환'(2004)과 '2차 송환'(2022)의 김동원 감독이 연출한다.  
/연합뉴스



### 박진연의 문화카페

며칠 전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열린 지역 원로작가의 초대전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이날 전시회는 작가의 명성 때문인지 박서보 화백을 비롯해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내로라 하는 명사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 곳에서 만난 전시기획자 J는 현재 공식적인 광주시립미술관장(시립미술관장)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서울 분위기가 틀려졌다. 광주 사정에 밝은 J에게 두달 전부터 시립미술관장의 공모 여부를 묻는 서울 지역의 인사들이 많다는 거다.

내용인 즉슨, '무늬만 공모'라는 소문이 맞다는 것이다. 시립미술관장에 관심이 있는데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돌아 망설여진다는 얘

이처럼 '카더라' 통신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과거 일부 전임 시장들의 선거 캠프에서 '공을 쌓은' 미술인들이 시립미술관장에 임명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량과 전문성 보다는 자기 사람들을 미술관장에 '꽂는' 바람에 지역 문화계에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캠프에 들어가야 한자리 하게 된다. 이는 자조적인 농담이 떠돌았다. 능력 있는 '입지자'들이 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광주시가 최근 개방형직위인 시립미술관장직 임용시행계획을 재공고 하면서 미술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월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내린 지 3개월 만이다. 관장은 상설 전시, 국내

# 새 시립미술관장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다. 괜히 '순진하게' 지원해 들러리를 서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서다. 순간, 어쩌다 이런 근거없는 루머가 서울까지 퍼졌는지 씁쓸했다.

사실,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지난 9월에 실시된 1차 공모때부터 나왔다. 캠프 출신 모씨가 내정됐다는 이야기에 서부터 강기정 시장과 인연이 있는 모대학 교수가 광주시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고사하면서 '일'이 꼬였다는 소문까지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이유가 어쨌든 1차 공모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이 면접을 거쳤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일단락 된 후 현재까지 공식 상태다. 광주시의 선입이 늦어지자 일각에선 특정인을 뽑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장과 가까운 외부 인사가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밀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돌아오고 있다.

의 교류·협력, 미술 작품과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대관 등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특히 올해 초 문을 연 G.MAP(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까지 지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시립미술관은 1992년 전국 최초로 개관한 공립미술관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미술인프라이지만 시스템이나 운영, 콘텐츠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21세기형 수장이 필요한 건 그 때문이다. 특히 새 시립미술관장 선임은 민선8기의 문화행정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지역주의에 기대거나 전통적 프레임에 갇힌 리더는 미술관의 미래가 담긴, 큰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 그리고 그 폐해는 코스란히 광주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문화·여행칼럼, 선임기자>

# 2021 출판계 동향·독서문화 자료 한 눈에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2 한국출판연감' 펴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해 출판계 동향과 독서문화 자료를 총망라한 '2022 한국출판연감'을 펴냈다고 19일 밝혔다.

책에 따르면 작년 신간 발행 종수는 6만4657종으로 전년(2020년) 대비 1.7% 줄었고, 발행 부수는 7994만 8185부로 2.1% 감소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독서 인구 감소, 제작비·인건비 상승 등이 작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책의 평균 가격은 1만7116원으로 2020년보다 4.2% 올랐다. 번역 도서도 1만2210종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연감에는 출판 산업 매출·영업이익을 비롯해 도서관·서점의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도 상세히 담았다. 또 국내 번역·출간된 수상작들의 정보가 담겼다. 이와 함께 작년 한국과 해외의 출판 산업 동향과 전망을 분야별로 제시했으며 국내외 도서전 소식도 정리했다.

세종도서·서점 베스트셀러·우수과학도서 등 목록을 구분해 수록했으며, 노벨문학상, 부커상, 풀리처상 수상작 등 국내외의 수상작도 소개했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대인시장, 한화생명, KT, (구)청자대방, 광주빌딩, KT, 광주중앙초등학교, 대중병원, (구)김병원, 추선회관, 예술의거리, 세종약기, 주치정 임구, 금남새마을금고, 음식의 거리, 동양저축은행, 금호시민 문화관, 원리사, SK,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금남로공원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라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령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